

동굴의 민속학적 접근

이 인 화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I. 서론

동굴이란 땅 표면에 뚫린 자연적인 구멍을 가리킨다. 동굴은 형성 원인에 따라서 형태가 틀리게 나타난다. 그 지역의 지질이나 환경 때문에 각기 나뉠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동굴의 관광 개발, 희귀한 동굴생물의 생태 관찰, 그리고 선사 주거지로서의 유적 조사 등으로 동굴이 학술 조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원래 동굴은 암흑의 세계로 항은, 항습이며 고요할 뿐 아니라 견고한 석회암의 장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천연 요새이기도 하고 버섯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식장으로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태평양 제도의 섬들에서는 무풍성, 견고성, 적막성을 이용하여 시신을 모시는 동굴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동굴은 새로운 작전 기지나 특수 자원의 저장고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 지하 동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분석과 이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런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다양한 이용이 강구되는 시점에서 과거 우리 선조들은 동굴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이런 동굴이 우리 민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동굴의 선사시대의 이용과 더불어 현대 동굴의 이용을 찾아 분류해 보고 유형별로 동굴과 관련된 우리 민속을 찾아 동굴민속을 개황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굴민속의 전반적 특성 파악을 통하여 해당 동굴의 이해를 폭넓게 하고자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발표된 동굴에 관한 논문은 그 전부가 동굴에 대한 동물상과 환경요인 등 자연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 인문지리관련 논문은 없었다. 특히 동굴과 고대인의 삶, 그리고 동굴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동굴민속을 이해하는 논문은 단 한편도 발표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공동굴 등을 포함한 자연동굴에서 민속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선조들이 어떤 용도로 동굴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주거지로서의 동굴, 그리고 동굴 설화, 속담, 그리고 동굴의 이용을 문헌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동굴과 의식주

1. 동굴유적

우리나라 자연동굴은 그 유형에 따라 지역적 분포가 달리되고 있다. 즉, 석회동굴은 내륙과 반도부에 분포되고 있으며 해식동굴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그리고 용암동굴은 제주도에 분포한다. 전 동굴의 90%이상이 석회동굴이며, 강원도에 대규모의 것이 집중 분포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은 20여 개가 있다. 1974년 3월 홍시환, 황용

휘, 김유혁 교수팀에 의하여 충북 미원 청석다리굴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1974년 1월 고수동굴(古藪洞窟) 입구에서 50m를 못 들어간 퇴적사면에서 수렵용 타제석기(打製石器)발견과 더불어 동굴입구 외부주변 경지에서 농경용 마제석기가 발견되었으며, 1975년 11월 입구로부터 150m 내부 동상(洞床)에서 마제도끼를 발견하게 되었다.

1974년 10월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팀이 충북 제천시 송악면 포전리의 산중턱에 있는 점말 동굴에서 선사시대의 주거유적을 발굴하였다. 1981년 제천 매포읍 상시마을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점유하며 생활하였던 3개의 바위그늘이 발굴보고 되었는데, 제1바위그늘이 그 가운데 구석기인들의 살림터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시 1그늘은 2층에서 11층까지 모두 10개 층으로 가늠되는데 4, 6, 10층을 제외한 7개 유물층에서 동물화석 유물이 출토되었다.

1983년 단양 도담 금굴은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연대를 많이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동물화석, 석기, 뼈연모 등의 다양한 구석기 시대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 있게 하여준 중요한 유적이다. 구석기문화는 전기의 이른 시기에서 후기 층까지 모두 4개의 다른 문화가 존재하였고 이후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도 위의 층들에서 찾아지고 있다.

2. 동굴속의 의식주

석기 유물을 통해 주된 생활근거지였는지, 재료를 얻기 위한 간이생활근거이었던지, 또 여름살이 자리, 집자리 등 생활모습, 또 그 생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또 신생대 제4기초 빙하기가 닥쳐왔을 때 동굴 안의 불에 그을린 자국이나 벽화를 통해 인류가 동굴로 찾아 들어 추위를 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동굴 벽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래도 동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입구 안쪽에서는 사냥용 타제석기가 발견되었고, 입구 밖의 발고랑에서는 농경용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발견되어 동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북 미원에 있는 냇가의 청석다리굴 속의 지하 50cm 아래에서 검은 노지가 발굴되었고, 그 동굴 벽면에는 거의 마모되어 가는 성혈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한강의 중상류 연안에 있는 많은 동굴들을 삶의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식생활

현재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개는 유라시아 늑대(Eurasia wolf)의 손들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축화된 것은 구석기 시대의 말기쯤인데, 가장 오래된 개의 유물로는 약 12000년 전의 것고 돼지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생활 여건속에서 석기의 사용이 요구되는 사냥으로 잡은 짐승의 부위별 해체과정은 일정한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굴 밖의 넓은 곳에서 이루어졌고, 부위별로 해체된 짐승의 고기는 부엌·조리용 석기인 굽거, 밀개, 자르개, 썰개 등으로 바르거나 요리해 먹는 행위를 주로 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굴안의 살림살이가 많은 뼈연모의 사용으로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제주도 북제주군 동김녕리 케내기 동굴 유적은 골편이 1706편이었으며 사슴, 멧돼지, 소, 말, 고양이과 동물 그리고 조류의 뼈가 발굴되었다. 그중 멧돼지(75%)의 뼈가 주종을 이루었고 사슴(17%), 소(6%), 말뼈가 3점 출토되었다. 또한 점말 용굴에서 발굴된 젓먹이짐승은 박쥐와 쥐 종류를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5목 12과 약 25종으로. 점말동굴에서 상당수의 뼈연모가 쌓임층에서 발굴되었다.

[표 1] 점말용굴에서 나온 큰젓먹이짐승의 화석 종류

목	과	종
우제목	소과	들소
	사슴과	사슴, 노루, 사향노루, 고라니, 꽃사슴
식육목	족제비과	오소리, 족제비, 산달과, 수달
	개과	여우, 너구리
	고양이과	호랑이, 표범, 사자(?)
	곰과	불곰, 반달곰, 동굴곰
	하이에나과	하이에나
기제목	코뿔소과	코뿔소
	말과	말
토끼목	토끼과	토끼
영장목	긴꼬리원숭이과	짧은꼬리 원숭이
	사람과	슬기사람

※ 출처 :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 용굴 유적, 박물관기요, 단국대 중앙박물관, p.156.

2) 의와 주생활

선사인들의 의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단지 인류의 조상이 돌을 쪼개 만든 연모를 통해 짐승의 가죽을 벗기어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동굴이 인류의 주거지였다는 사실은 충북 미원(米院)의 청석(靑石)다리굴, 충북 단양의 고수굴(古藪窟), 충북 제천의 점말동굴, 구양굴 동굴 화석(8점), 두루봉 동굴유적(14점) 등과 ‘다람쥐굴’이라고 불리우는 색달동 해식동굴유적에서 적갈색 무문토 기편들이 출토되어 주거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류가 동굴 속 깊숙한 곳에서 살기보다는 동굴 입구 부근이 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을 먹고 사는 장소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굴 속 깊숙한 곳은 암흑지대이고 습기가 너무 많고 너무 춥기 때문에 오래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은 곳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의 처리 등 환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Ⅲ. 동굴관련 신화 및 설화

1. 건국신화 : 단군신화

건국신화는 한 국가가 탄생하기까지의 사상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내용에는 그 나라 문화적 배경과 민족성이 담겨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단군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어두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 동안 정성을 드렸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했으나 곰은 끝까지 참아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여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을 낳았다는 동굴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2. 동굴 전설

1) 동굴전설의 특성

첫째, 동굴전설은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동굴은 빛이 없고 습기가 많은 자연적 조건과 미지의 어둠이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신비로운 환경으로 여겨져 무시무시한 비밀이나 신비를 간직한 지하세계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석회암 동굴 등 자연동굴의 신비경과 관련해 전설을 통해 그 아름다움과 동굴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동굴이 도승이나 인물의 수양터, 기도터로 이용되었다는 전설을 통해 도력이나 신령이 깃든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례는 수집하지 못했지만 암흑과 같은 어두운 동굴에서 역사의 인물들이 수양터, 기도터로 이용해 그 동굴의 가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넷째, 굴속의 모양과 관련된 굴명(窟名) 전설이 많다. 뱀처럼 길고 구부러졌다든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의미에서 굴명이 붙여진 곳이 많다.

다섯째, 동굴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흔적을 간직한 곳으로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피신하였던 이야기들이 전해 온다. 특히 임진왜란, 6.25 전쟁과 관련된 전쟁과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다.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석회동굴인 고씨동굴, 울진의 성유굴 등이 대표적이며, 대정읍 송악산에 만든 일본의 비행장 시설로 일본 해군항공대 비행장인 알프르비행장으로 제주도를 자신들의 본토 사수를 위한 대규모 땅굴을 파고 지하전지를 구축했으며, 송악산 알오름쪽의 땅굴은 군수물자를 실은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크고 넓게 건설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파 들어간 땅굴이 거미줄처럼 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송악산 해안절벽에는 15개의 인공동굴이 뚫려있는데, 너비 3~4m, 길이 20여m에 이르는 이 굴들은 성산일출봉 주변의 인공동굴처럼 어뢰정을 숨겨놓고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했던 한국내 최대의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이다.

IV. 동굴 속담과 민간신앙

1. 속담

1) 동굴관련 속담의 일반적인 특성

첫째, 굴 관련 속담은 아주 적은 편으로 동굴관련 속담보다는 구멍에 대한 속담이 대부분이다. 둘째, 속담에서 동굴은 깊고 끝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셋째, 구멍은 굴 입구의 크기와 관련된 속담들이다.

2) 동굴관련 속담

(1) 굴 관련 속담

- ① 굴 우물에 돌 넣기.(던지기.)
- ② 굴 우물에 말뚝 쏘어 넣듯 한다

③ 소금 먹은 소 굴 우물 들여다보듯

④ 범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지

(2) 구멍관련 속담

① 개구멍에 망건치기

② 개구멍으로 통영갓(통량갓)을 굴러낼 놈

③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

④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⑤ 구멍 봐 가며 썩기 짝는다.

⑥ 구멍 봐 말뚝 짝는다.

⑦ 구멍에 든 뱀의 길이를 모른다.

⑧ 구멍에 든 범.

⑨ 구멍은 짝을수록 커진다.

⑩ 구멍에 든 뱀 길이는 모른다.

⑪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⑫ 대구멍으로 하늘 쳐다보기(북한)

⑬ 돌도 십 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⑭ 똥구멍으로 호박씨 간다.

⑮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⑯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⑰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⑱ 범 본 여편네 창구멍 들어막듯.

⑲ 삭은 바자 구멍에 노랑개 주둥이.

2. 민간신앙

1) 기도처로서의 굿당

굿을 하는 굿당은 굿을 거행하는 의례 공간이다. 신령이 왕립하는 곳이며 신과 더불어 놀 수 있는 신성한 영역으로 성전(聖殿)과도 같다. 신을 모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숙하고 장엄한 의례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무속현상에서 보편적 양상 중의 하나로 무속신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기도 하다.

굿하는 것을 미신시하기 전,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기전 의식개혁운동이 벌어지기 전만 해도 굿을 의뢰한 사람은 집안을 굿청으로 꾸미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굿일을 맡은 무당도 그의 신당을 굿판으로 삼았던 전통이 있었다.

집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신령이 머물고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서도 오랫동안 굿 의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회적 억압과 핍박

이 계기가 되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위치하게 된다. 주변에 산과 물이 있는 자연친화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굿당 내부 구조상 필수적으로 산신당과 용궁당 그리고 서낭당이 들어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굿당은 주로 국유지나 사유지 또는 국립공원 속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진 곳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굿당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社会团体나 종교단체 등이 사찰, 기도도량 또는 연수장 등의 간판을 걸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도처가 명산 명소에 있는 관계로 많은 규제와 제재가 따르고 있다. 대부분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속신앙인들이 기도하러 갈 때는 많은 정성을 들이지만 돌아 올 때는 싸 가지고 갔던 것들을 몽땅 버리고 온다. 그런 관계로 기도터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가고 결국 환경문제가 야기되어 폐쇄되고 만다.

2) 기도처로서의 굴의 조건

민간신앙승배자들이나 무속인들의 기도처는 명산대천의 큰 암석이 있는 곳으로 대개는 대개 단애(斷崖)아래나 절리(節理) 등으로 큰 암석이 갈라진 틈, 또는 그런 웅장한 암석아래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동굴을 기도처로 삼는다. 그 외 토굴이나 방공호로 사용하던 인공동굴이 기도처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국에 영험하다고 알려진 기도처는 대개 명산대천에 주로 있다. 그러나 현재 산불 및 법의 규제 등으로 많은 기도굴이 폐쇄되었고 그나마 대부분 사찰에서 기도굴을 관리하는 형편이다.

영험한 기도처의 자연지리적인 조건은 굴안의 암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생명수요, 만물형성의 근원이 물이 졸졸 설새없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암석이 뒤덮은 장소, 아니면 큰 암석이 웅장하게 있는 곳이다. 이것은 한국내에 전해 내려오는 미륵신앙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 기도처로서의 굴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기도굴 선정의 조건으로써 굴의 길이나 크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굴의 길이는 입구로부터 1m~5m정도이고 최적의 기도굴은 굴의 길이가 2m~3m가 좋다. 크기는 제자(기도자)들이 1명~10명이 들어갈 정도가 적당하며 보통은 2~3명이 들어갈 자리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드시 정한수를 떠 놓을 수 있는 물이 바위틈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영험하다고 알려진 기도굴은 전국에 180여 개가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원도 봉산 쌍도끼 바위 기도처는 기도굴이 뽕 뚫렸는데 그 굴 중간에서 물이 나온다. 생명수인 물이 졸졸 설새없이 나온다. 전라도 천왕산 금강굴 기도처는 그 안에 여자음부형의 바위가 있는데 그 음부에서 물이 나온다. 영월 굴런암 기도처, 경기도 도두람산(옛날 저명산) 약수암 기도터가 대표적인 곳이다.

V. 동굴의 생활민속

1.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특성

첫째, 생활민속으로써 동굴은 발효 및 저장시설로, 생활용수 공급처로, 관광지와 같은 유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발효 및 저장시설으로써 동굴은 어리굴젓, 새우젓 등 항온성을 이용해 발효되고 저장되고 있으며 버섯의 재배지로, 그밖에 각종 실험 실습실로도 이용되고 있다.

셋째, 석회암 지대의 특성상 모여드는 물을 생활용수 및 양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넷째, 현대 동굴의 신비경을 이용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동강유역에만 현재까지 확인된 석회동굴이 250개이며, 얼마나 많은 동굴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1970년대 조사에서 남한에만 약 700여 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12개 동굴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관광동굴 개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밀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오염에 의한 내부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분류

1) 발효 및 저장시설로서의 동굴

자연동굴 및 지하토굴에 식품을 저장한 것은 BC 9000~7000년경으로 중동지방에서 신석기 이전부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 의해 곡물을 지하에 저장한 사례나 시험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군사목적으로 일부 지하동굴에 저장하고 있으며 1986년 백미와 압맥(壓麥)의 특수 저장방안 연구가 있었고 충남 서산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생강을 토굴에서 저장해 오고 있고 1996년 6월 1,480평 규모로 10,368톤 저장규모로 곤지암 지하저장터미널을 착공하였다. 지하동굴이 국내에서 식품저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새우젓을 숙성·저장하는 것이다.

광천읍 용암리 뒷산의 새우젓 저장동굴은 일제시대 때 사용된 자연적인 동굴(폐광) 몇 개소와 1960년대 초 굴착된 인위적인 동굴이 대부분이다. 지하동굴은 13~15℃의 적정온도 및 습도의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새우젓의 숙성이 용이하며 보관시 변질의 우려가 없어서 새우젓 저장에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우리나라 새우젓 저장 동굴 현황

구 분	개소수	총공변길이	저장규모
신안군 임자도	4개	400m	480톤
홍성군 광천읍	20개	4,700	2,180톤

자료 : 이무원·임재환, 동굴을 이용한 수산물 저장의 사회경제적 투자효과 분석(수협중앙회, 1991, 6)에서 재인용.

2) 생활용수로의 동굴류(洞窟流)의 이용

중유굴은 원래 지하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유굴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석회암이 발달하는 가르스트지대에서는 빗물이 땅위로 흐르지 않고 돌리네와 폴리예의 밑바닥부터 땅 밑으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로 된다. 따라서 넓은 평지가 물이 부족하여 이용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곳도 많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이야말로 생명수로서 물을 찾아 헤매는 고투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강원도 삼척의 관음동굴은 일종의 수혈인데 동굴내에는 높이 20m에 달하는 폭포가 있다. 이 지하수는 매분 3.6㎡으로 200㎡에 이른다. 이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이 동굴의 배후에 있는 석회암지역의 물이 모인 것이다. 삼척의 초당굴, 활기굴 등 많은 석회동굴도 비슷한 예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근에 계곡하천은 고갈되어 그 유수량이 적은 곳도 있다. 이것은 빗물이 모두 지하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동굴 돌리네 밑의 포늘으로부터 지하수계가 계속 흘러 석회동굴과 연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현재 이 대지의 농가에서는 돌리네의 밑에 펌프를 파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월의 고씨동굴이나 초당굴, 관음굴, 활기굴 등지에서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고갈되는 일이 없으며 1년을 통하여 섭씨 14~16℃ 내외의 물이 솟아 오르고 있다. 더구나 초당굴의 동굴 지하수는 5만㎡에 달하고 있어 계곡밑에 있는 초당 저수지에 많은 수원을 확보케 해주고 있다. 이 지하수는 부근 일대에 좋은 관계용수로 되고 있고 평창군이나 단양군의 동굴지대 부근에서는 인근 현지주민들의 상수도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단양 영춘에서는 온달굴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물방아를 돌리고 있었던 흔적을 아직도 볼 수 있다.

3) 유희공간으로서의 동굴

(1) 울진 성유굴

성유굴은 우리나라 최초로 탐험이 이루어진 동굴이다. 1961년 11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1963년 5월 7일, 석회암동굴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성유굴의 내부는 12개의 크고 작은 광장과 5개의 호수로 되어 있다. 천장이 가장 높은 곳은 40m에 달하고 수심은 30m에 이른다. 동공의 규모도 크고 2차생성물이 밀림처럼 발달해 굴 전체가 웅장하고 화려한 종유석군으로 꽉 차 있다. 입구에서 막장까지 어느 곳에서도 웅장하고 신비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굴 내부의 호수는 다른 관광동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굴 내부의 열두 광장은 각각 특징과 분위기에 맞는 이름이 지어져 있고, 종유석들도 각각의 모양이나 분위기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다.

(2) 영월 고씨굴

고씨굴은 국내 2위의 석회암 동굴이다. 1969년 6월 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씨굴은 1974년 5월 15일부터 관광동굴로 개발, 공개되고 있다. 주굴 1,800m, 총연장 6.3km로 소개되어 있으나 정확한 길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사 경험이 있는 동굴탐험인들에 의해 약 3,000m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동굴 입구에서 약 200m까지는 비교적 단순하게 외줄기로 뚫려 있고, 400m 지점부터는 협곡이 전개된다. 800m 지점에 이르면 지하천이 넓어지고 거미줄같이 지굴이 갈라진다. 지굴마다 광장이 있고 광장마다 아름답리 석주며 종유석, 석순들이 무수히 발달해 있으며 천장에는 바람결에 움직이는 커튼과 같이 얇게 물결친 종유석이 매달려 있다.

(3) 단양 노동굴

노동굴은 관광동굴로는 유일한 수직동굴이다. 노동굴은 현재 입구가 3개 있는데 관광로 입구와

출구는 인공터널이고, 천연 입구는 출구 부근 천장쪽에 있다. 노동굴은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의 서쪽 약 6km 지점에 있는 옥녀봉에서 북으로 뻗은 산자락 중턱에 있다.

노동굴은 1979년 6월 18일 천연기물로 지정되어 1980년 일반에 공개되었다. 입구 안내판에는 동굴의 길이가 1,400m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총연장은 약 700m 정도이며 수직굴 관광으로서의 가치와 위치가 확고하다. 노동굴의 모양은 절리면의 발달이 좋아 이를 따라 종유석들이 열을 지어 생성된 형태인데, 유석이 이것들을 덮으며 하나의 거대한 유석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관광동굴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생물들을 관찰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굴의 민속학적인 접근을 통해 선조들이 어떤 용도로 동굴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파악해 보고 주거지로서의 동굴, 그리고 동굴관련 신화와 설화, 속담과 민간신앙,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이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1. 주로 선사시대에 동굴을 주거로 활용하였는데 동굴을 추위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대개는 동굴 입구에서 주거하였으며 식생활은 사슴, 멧돼지 등을 잡아 밖에서 동물을 해체해 동굴안에서 먹고 살았으며 그 가죽을 이용하였다.
2. 신화는 한 국가 탄생의 사상적 배경으로 동굴이 곰과 호랑이의 정성을 드린 장소로 나오며 동굴의 신비스러움과 관련된 설화가 많아 동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3. 동굴 관련 속담은 많지 않으나 미지의 세계와 관련한 속담이 있으며 굴 입구의 크기와 관련된 구멍관련 속담이 많이 있다.
4. 동굴을 민간신앙에서 기도처, 수양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민간신앙에서 활용되는 동굴은 우선 물이 있어야 하고 웅장한 단애 및 암석이 있는 곳이다.
5. 현대 생활민속과 관련하여 동굴은 식품 저장소로서. 군사시설로써, 생활용수 공급처로써, 그리고 유희공간인 관광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文 獻

- 고임순, 1995, 수상; 그 동굴의 의미, 한국논단 72권.
- 김상훈, 1978, 우리나라 관광동굴의 현황과 그 개발에 대한 소고,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1권 2호.
- 김신규, 1985, 평양부근동굴유적발굴보고 : 유적발굴보고 제14집,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완수, 1986, 원시동굴벽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자치단체 국제행사-강원도 삼척시- 2002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지역관광자원을 앞세운 세계인의 동굴축제, 51권 583호.
- 박강철, 1991, 사회문화변동에 따른 주거규모의 추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홍익대학교.
-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6, 유적발굴보고,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무송, 1998, 동강 유역의 석회암 동굴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권 2호.

- 석동일, 1987, 한국의 동굴, 아카데미서적.
- 소진섭, 1999, 동굴, 서울 : 고음사.
-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 용굴 유적, 박물관기요, 단국대 중앙박물관.
- 스티븐 버트먼, 1994, 동굴에서 들려오는 하프소리: 낭만의 고고학기행, 한길사.
- 신태균 이차수 진재광, 1996, 제주 김녕리 켜내기 동굴 유적에서 출토된 뼈유물의 고고학적 연구, 대한수의 학회지 36권 4호.
- 우경식, 2002, 동굴, 서울 : 지성사.
- 윤경수, 1997, 단군신화의 광명상징과 고전문학에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동굴모티프와 고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8권.
- 이무원·임재환, 1998, 동굴을 이용한 수산물 저장의 사회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광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논총 10집.
- 이용균, 1998, 청원 두루봉 유적과 요동 구석기 동굴유적의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 이윤조·조태섭, 2003,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옛사람들의 사냥경제활동- 중원지역 동굴유적을 중심으로, 섬사와 고대, 한국고대학회 1권.
- 일진행, 1983, 아이들의 동굴, 서울 : 백미사.
- 정은혜, 1999, 가능한 삶으로서의 동굴 밖의 삶,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조태섭, 1986, 점말용굴의 뼈연모 연구-특히 잔손질된 연모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창균, 1990, 용곡 동굴유적을 다시 논함, 동방학지 60권.
- 홍시환, 1976, 우리 나라 자연동굴의 지리적 분포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 20권, 건국대학교.
- 홍시환, 1979, 한국의 자연동굴, 금화출판사.
- 홍시환, 1989, 고수동굴지대, 삼주출판사.
-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서울: 삼주.
- .Bertman, Stephen., 동굴에서 들려오는 하프소리 : 낭만의 고고학기행, 서울 : 한길사, 1995.
- http://www.ncaes.go.kr/raising/jjeu_jaelae/dog01.htm
- 매일신보, 동굴내의 적소탕 야습적을 제선격파(1940.4.23)
- 매일신보, 동굴발견(1922.5.18)
- 매일신보, 준동튼 증공유격대전이상실 동굴도입,(1943.08.15)